

2026년 누리과정 포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우리 가족 놀이 실천 사례 공모전

제목: 호현동 호랑이 탐정단

수리산 '범고개'의 전설을 찾아 떠나는 우리 집 호랑이 탐정단

- 호현동 '범고개' 이야기가 가족 놀이가 되기까지

1. 아이의 배움이 가족 놀이의 계기가 되다.

일년 전,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이름이 박달2동에서 호현동으로 바뀌었대!"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동 이름을 배우고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호현동의 옛 이름이 '범고개'였고, 오래전에는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에 호랑이가 살았을까?"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호랑이 탐정단' 활동을 시작하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수리산 자락, 동네 공원, 안양천 산책로 등을 걸으며 '호랑이 탐정단'이 되어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탐정대장, 둘째는 수집대원, 셋째는 경찰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탐험을 더욱 재미있게 하기 위해 작은 미션도 만들었습니다.

- 미션 1 : 호랑이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장소 찾기
- 미션 2 : 호랑이 발자국처럼 생긴 돌이나 나뭇잎 찾기
- 미션 3 : 가장 멋진 '호랑이 보물' 하나씩 주워 오기

아이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를 살피며 "여기가 호랑이 집일까?"라고 묻고, 잔디밭에서는 "발자국이 있을 것 같아!"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매미의 탈피각 발견하면 "호랑이가 먹고 남긴 음식이야"라고 말했고, 길게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호랑이 꼬리 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한 빗물이 고여 있었던 자리를 "호랑이가 오줌을 싸고 간 흔적이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발견하겠다고 앞장서 걸었고, 부모도 함께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나무의 모양, 새소리, 바람 냄새까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3. 놀이는 또 다른 놀이로 이어지다.

탐험을 마친 뒤에는 집에서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한 범고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옛날 호랑이는 사람을 무섭게 하려던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경찰이었던”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 모두 한참을 웃었습니다. 자연 놀이가 미술 놀이와 이야기 놀이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호랑이가 등장하는 책도 도서관에서 골라보고, 첫째 아이가 쌍둥이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4. 우리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다.

이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집에 돌아가자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오늘도 호랑이 탐험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산책 시간도 훨씬 길어졌고, 자연 속 작은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뭇잎을 발견하면 이름을 궁금해하고, 계절이 바뀌며 달라지는 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 제가 가장 의미있다고 느꼈던 것은 첫째 봄이가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 많았네!”**라고 말하며 다음 탐험 장소를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가족의 탐험이 기대되다.

부모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목적 없이 걷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상상한 호랑이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와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흥미로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의 오래된 이야기 하나와 가까운 공원, 안양천길만 있어도 아이들의 상상력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은 거창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역사와 전설, 자연환경 자체도 훌륭한 놀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호현동의 ‘범고개의 이야기’를 따라 계절마다 새로운 탐험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봄에는 새싹 탐험, 여름에는 곤충 탐험, 가을에는 도토리나 낙엽 탐험, 겨울에는 동물 발자국 탐험으로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의 옛이야기가 아이들의 웃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덕분에 평범했던 산책길은 가족 모두의 추억이 담긴 가장 특별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웃음을 만나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놀이터가 됩니다.”